



HANNAH CHOI MINISTRIES

하나님의 심장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8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심장을 빼내어서 그 피를 터뜨려 정결한 그 피가 온 세상 죄를 덮으시기 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현저히 다른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도, 호흡을 주신 이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이도, 새 생명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된 임마누엘 삶을 살게 하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에 써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다시 살아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뜨겁게 사랑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영원한 심장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서 상대적 사랑이 아닌 절대적, 무조건, 무흠의 정결하고 거룩하며 자신의 육체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보혈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십자가의 아가페사랑을 거부한 채 아직도 귀와 마음 문을 닫고 문밖에 서서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 호소와 절규의 심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심장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몸에 이식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로는 주님 사랑과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요 밑으로는 성도와 이웃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선교사역과 연약한 성도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성령님의 수족이 되어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